



◇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 자원봉사자들이 15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했다.

# “따뜻한 대접 너무 기분 좋습니다”

## 조계종 부산경남봉사단 방글라데시 노동자 60명 초청 식사제공

“너무 고맙습니다.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5일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가 부산 시내 모부에서 마련한 식사에 초청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서툰 발음으로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대부분이 산업 연수생으로 타국 생활의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한끼 식사대접에도 기쁨을 감출 줄 몰랐다. 부산, 양산,

김해 등의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60여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발데시 출신인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가 마련한 첫 행사여서 더욱 뜻깊었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인연은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

인계임으로 거슬러간다. 부산경남지부의 봉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던 부산보현의 집이 방글라데시 선수들을 서포터즈한 인연의 끈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훌륭한 정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 매월 한차례 식사 초대와 함께 통도사, 범어사 등 사찰 순례, 한국문화체험 등의 다

양한 행사를 마련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8월 중순에는 통도사를 방문해 암자순례, 사찰 음식 맛보기, 차 마시기, 등 한국문화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기표 부산경남지부장은 “한끼 식사에 곧 사랑”이라며 “생활용품, 음식, 현금 지원 등 다양한 후원과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6-0146 천미희 기자

### 매월 1회 통도사 등 순례·사찰음식 맛보기 등 문화체험행사

천미희 기자

## “선불교 중심 한국중세불교사 연구

### 미륵신앙중심 정토사상 고려돼야

#### 영남대에서 학술대회

“나팔여초를 고대에서 중세사회의 전환기로 파악하여 교학불교 특히 화엄사상을 고대사회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선사상을 중세불교의 지표인 변화사상으로 인식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오류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와 한국중세사학회 공동으로 주관해 13-14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 중세 불교사의 재조명’ 전국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부산대 채상식교수는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시대구분 논의에 있어 선사상을 중세사회의 지표로 삼아 기존 교학불교와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선불교 중심의 중세불교사 연구에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정토사상, 불교의례와 직접 연결되는 밀교적 요소들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당시 선사상이 불교의 실천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시기 사회변동을 추동한 사회세력의 신앙적 기반은 궁에가 민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미륵불을



자처한 사실과 지방 추종들의 신앙형태를 살펴보면 정토신앙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남대 김홍동교수도 “불교사 연구는 사실적 해명과 함께 비판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불교사 연구는 고승들에 대한 사상해설에만 급급해 대중

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는 강원대 김홍삼교수, 전남대 변중명교수, 일본 구태대 조명제교수, 동국대 채인환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원구 기자

# 대구불자들이 ‘환경지킴이’ 나섰다

## 동화사·대구경북포교사단

### 환경보존실천위원회 결성

사찰환경과 수행환경보전을 위해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동화사(주지 지성)와 대구경북포교사단(단장 권재은)은 29일 오후 3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대구불교 환경보존실천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대구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에 나감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 불교계 환경운동단

체가 창립되기는 이번이 처음. 환경보존실천위원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상임고문을, 동화사 사회국장 덕현스님이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포교사단 환경팀 소속 포교사들과 함께 지역 불교성지인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지에서 다양한 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환경보존실천위원회 위원장 덕현스님(동화사 사회국장)은 “제2의 남산이라고 불리는 팔공산이 현재 무분별하게 지어진 러브호텔 등에서 나오는 폐수와 관광객들의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존실천위원회는 앞으로 동화사 주변의 환경정화운동과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펼치는 환경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 팔공산 순환로에 야생화 ‘꽃길’

### 참나리·원추리 등 시민들에 볼거리

갯바위-동화사-파계사로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로에 야생화 꽃길이 조성돼 이곳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갯바위에서 파계사까지 16.3km에 이르는 팔공산 ‘야생화거리’에는 참나리, 원추리, 꽃장초, 옥잠화, 맥문동 등 초여름의 전령사들

이 이미 만개해 불자와 시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학습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야생화 거리’에는 모두 30여 만본의 야생화들이 심어져 있으며, 팔공산 관리사무소가 5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월 완료했다. 박원구 기자

## 삼보사찰, 새 수련풍토 조성

### 3寺 포교국장, “문화·수행·참선으로 특화”

통도사 정법 스님, 해인사 현진 스님, 송광사 월서 스님 등 삼보사찰 포교국장스님들이 12일 해인사 정화당에 모여 수련회 운영에 관한 정보교환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련회를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삼보사찰이 먼저 모범을 보여 다양한 포교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스님들은 이를 위해 통도사는 다

양한 불교문화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련회로, 해인사는 스님들의 일과를 따라해 보는 수행위주로, 송광사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회로 각각 특색 있는 수련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큰 틀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수련동문화 등의 활성화를 통해 수련생들이 수련회 이후에도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구 기자

## 특수분야 교원연수기관

### 통도사 성보박물관 선정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발하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03년 특수분야교원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통문화관련 과목 담당 교사, 전통문화관련 특기적성교육 및 특별활동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교원 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은 전국 초·중·고교원 40명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5일간 열린다. 신청은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받는다. 문의 (055)384-0010 천미희 기자

## 강서예술촌 개촌 2주년

### ‘다구와 그 주변展’ 열려

예술인 30여명이 입주해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부산 강서예술촌(촌장 강세우)이 개원 2주년을 기념하며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시실에서 ‘다구와 그 주변展’을 연다. 1천3백여평 규모의 폐교에 예술촌 갤러리, 작업장, 야외공연장,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강서예술촌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 문화공간이다. 천미희 기자

## 도자기 성덕대왕 신종

### 관광기념품 경진 대상

경상북도가 주최한 제7회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거꾸집을 사용하는 기법을 응용한 경북 철곡 김재철 씨의 ‘도자기 성덕대왕 신종’이 대상을 차지했다. 경상북도는 “도자기의 맑은 소리가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대상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원구 기자

## 경주 남산일대

### 새위치 표지판

앞으로는 경주 남산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 경주소방서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주 남산의 119구표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박원구 기자

새로 설치된 표지판은 신라인의 미소와 당모양으로 남산 8개 등산로에 모두 50개가 설치됐으며,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어 조난을 당했을 때 이 번호를 알려주면 쉽게 구조가 가능하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새 표지판 설치로 구조시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구 기자

## 미륵 제일성지 금산사 여름 수련회 안내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하고 통일신라 진표 왕자께서 중창한 고즈넉하고 이국적인 모악산 금산사에서 금번 단기출가체험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짧은 인생 노정(路程)에 있어 참행복과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행기반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순차 | 기간                  | 대상자 | 인원   | 동참금     | 비고         |
|----|---------------------|-----|------|---------|------------|
| 1  | 7월 20일(일)~7월 22일(화) | 어린이 | 100명 | 20,000원 | 초등학교 3학년이상 |
| 2  | 7월 25일(금)~7월 27일(일) | 청소년 | 300명 | 30,000원 | 중·고등학생     |
| 3  | 8월 01일(금)~8월 04일(월) | 일반1 | 80명  | 70,000원 | 20세~60세    |
| 4  | 8월 14일(목)~8월 17일(일) | 일반2 | 80명  | 70,000원 | 20세~60세    |

여명의 새아침 일주문에서부터 금산사 중창주이신 진표왕자가 세우신 방등계단까지 삼보일배로 정진하여 미륵신선수계식을 엄숙하게 봉행합니다.

- 장소: 금산사 보제루(2층 누각)
- 도착시간: 어린이(오전 10시), 청소년 일반 1/2(오후 2시까지)
-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고무신(운동화), 손전등, 간소복, 여벌옷
- 접수: 선착순 마감
- 수련회비 납부처: 우체국 400473-01-000707 (예금주 금산사)
   
통련 525133-51-000481 (예금주 금산사)
   
입금 후 전화 연락 요청(수련회 불참 시 수련회비 반납불가)

※ 자세한 연락 및 문의처  
 중무소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불교회관 전화 063)277-3497, 251-4942 / 팩스 063)275-0108  
 금산사 홈페이지 http://www.geumasansa.org

##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옛날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역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출국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 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인양의 00 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련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발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의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합장

##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深심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하였나. 果師燒却成學語 고사(果師)가 소각함은 말은 배움을 경계했음이나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底何嘗限碧巖 지을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라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말이 많음이나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흉남하지 않느니라.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현대불교 02·737·8881